

#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신문과 신소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cubinage discourse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Based on newspapers and Shinsoseol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시간강사 전 미 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 Jun, MiKyung

##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개화기 축첩제 담론의 제 문제 |
| II. 개화기 이전의 축첩제  | V. 맺음말               |
| III. 개화기의 축첩제 담론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paper serves to analyze discourses on concubine at the beginning of the modernization era or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For this analysis, the estimated time frame of the enlightenment period will be from 1860 through the time when Korea was annexed into Japan, which was in 1910. The discourses appeared in newspapers and Shinsoseol which are the text of this study have been analyzed with the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The major conclusions that ar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llectuals during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criticizing concubinage, tired to establish the monogamous relationship and they argued that it should be the prior condition for Korea to enter into the civilized society. Second, the concubinage was criticized in the point of the newly established view. The criticism was on double sex ethics, applying different ethical standards to men and women and the prohibition of wife's jealousy of concubine. Third, intellectuals during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were tried to do away with concubinage by enforcing the discrimination between wife and concubine. But the efforts resulted in making concubinage personal problems. Also consciousness based confucian ethics including female virtues was forced to be followed in ordinary affairs while concubinage was criticized in the point of the view of western ethics based consciousness. The huge differences between two ethics consciousness resulted in serious conflicts in family.

◆ key word: 개화기, 가족윤리의식, 축첩제, 담론의 이중성, 가족갈등.

## I. 들어가는 말

한국사에서 개화기<sup>1)</sup>는 조선사회의 안팎으로 위기감이 급증된 총체적 난국이었다. 조선 내부에서는 문란해진 삼정과 함께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는 극에 달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경제는 더욱 피폐해져서 흔히 19세기는 민란의 세기로 불리어질 정도로 전 지역에 걸쳐 민란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정치적·경제적 상황보다 조선인에게 더욱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서양 열강에 대한 침탈이었다. 즉 개화기는 비상사태의 연속이며, 이 비상사태는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대외 위기 상황을 발생한 데서 비롯되었다(장인성, 1998:181).

반면,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가 창조해 낸 당위의 규범으로서의 윤리는 사회적 산물로서의 특징을 갖는데, 이는 윤리가 사회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화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유교적 윤리의식의 해체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개화기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개화파 지식인들은 일본을 포함한 열강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서구의 잣대로 조선의 제도와 관습을 재단하면서 그 변혁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일련의 가족제도가 구습으로 매도되었고 그러한 가족제도 중의 하나가 축첩제이

다. 조혼과 과부개가금지와 함께 축첩제는 당시에 타파되어야 할 대표적인 가족제도로 비난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관점이 개화기의 가족과 여성에 머무를 경우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표피적인 사실에만 주목하여 왜 이러한 제도가 담론화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sup>2)</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화기 조선의 '개화자강'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했던 일련의 가족제도 가운데 축첩제의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축첩제가 어떤 맥락과 배치 안에서 비난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II장에서는 개화기의 축첩제의 저변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개화기 이전의 축첩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III장에서는 전통은 '낡은 것', '악한 것'이고 서구는 '새 것', '선한 것'으로 조망하는 개화기 '계몽의 이분법'의 칼날 아래 단죄되고 있는 축첩제의 일면과 그 안에서 새롭게 동태 되는 윤리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이러한 축첩제 담론이 수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로 인해 담론 안에 내재된 모순이 일상에서 가족갈등으로 발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담론분석'의 방법론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걸쳐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가

1) '개화기'에 대한 시대설정은 '역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하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에 학자마다 그 주장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910년 한일합방까지로 보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대 일상의 '동요와 혼돈'에 주목하여, 서구의 이질적인 외부세력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조선의 자기질서가 동요되는 한편 그것에 대한 심각한 민족자존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1860년부터 1910년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개화기 시대설정에 대한 논의는 최창규(1972), 『근대한국정치사상사』, 일조각, p.9 참조.

2) 그 한 예로 이배용(1994:130)은 '개화기에 조혼의 금지, 과부제가 허용, 축첩 폐지론의 혼인을 둘러싼 여성억압이 빈번하게 거론됨으로써 여기에서부터 여성해방의 맹아가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 개화기에 기존의 가족제도를 비난하고 있는 담론에서는 근대적 여성해방의 맹아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여성의식을 읽을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당시의 담론이 내재한 보다 중요한 본질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를 생각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가 담론분석이라 할 수 있다. 담론(discourse, discours)은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設] 기호들의 집합[言]’(미셀푸코 지음, 이정우 해설, 1993:177)을 의미하기에 담론에는 담지자의 의식과 지향성이 수반되어 있다. 담론은 사회적 실천과정에서 지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그 지식에는 권력관계와 주체성의 종류들이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담론의 개발은 바로 새로운 사회관계의 지평을 여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문소정, 1999:71-72). 따라서 담론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모양 짓는 여러 힘들(forces)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 푸코는 담론분석을 하기 위하여 역사학의 한 방법으로서 계보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담론의 계보를 연구하는 것이 현재의 역사를 쓰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역사라 불리는 푸코적 계보학은 역사에 있어 최종 목적성, 또는 숨어있는 의미를 찾기보다는 특정 역사적 사건의 변형과정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소계보를 찾아내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담론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사회를 어떻게 변혁할 수 있는가에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한 시대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담론은 그러한 문제의 변화의 방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조은 외, 1999:6-10). 최근의 담론연구는 다양한 담론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지식을 형성한 여러 영향력들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담론연구는 여러 제도에서의 담론과 지식의 가면을 벗기는 능력에서 중요한 기동

을 보여주고 있다(다이안맥도넬 지음, 임상훈 옮김, 1992:12-17).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개화기의 신문과 소설 그리고 잡지를 텍스트로 하여 그 안에 담긴 축첩제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텍스트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1880년대 개화세력이 사회의 주요한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개화운동이 본격화되었고 그 운동의 결실이 바로 근대 신문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신문은 개화 선각자들이 아래의 일반사람들에게 개화사상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간된 위로부터의 운동으로,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민다수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게 된 신문은 획적으로 확산되는 대중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이광린, 1979:152). 또한 소설은 소설이 지니고 있는 당대의 상황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역사상 모순과 갈등이 어느 시대보다도 극심했던 개화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신소설<sup>3)</sup> 또한 예외는 아니다. 신소설에는 ‘작가의 눈’으로 읽혀진 ‘개화기’가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작가의식에는 당시의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소설은 개화기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화세력과 종교계 등 각종 사회단체는 신식 활자와 인쇄기술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잡지출판을 하였는데 잡지의 주요한 목적은 문명의 개화와 민족의 주권을 세우는데 있었다(최봉희, 1994:78-7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화기 신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민족지라 일컫는 당시의 민간 신문과 을유문화사에서 발간한 『한국신소설전집』<sup>4)</sup>에 실린 신소설, 그리고 특히 가정부인의 ‘교육’과 ‘계

3) 신소설은 개화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출현한 서사양식으로 개화기의 모순된 시대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소설’은 다른 나라 문학사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한국문학사만이 지니고 있는 문학 양식상의 독특한 명칭이며, 우리 문학사에 있어 소설의 한 양식을 대표하는 사적인 술어로서, 그 어휘는 그대로 한국 근대화 과정의 한 반영인 동시에, 그 기형적인 사회발전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문학의 비정통적인 변모를 고스란히 대변하는 명칭이기도 한 것이다(전광용, 1986:8-10). 한편 개화기 축첩제의 실상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신소설의 담론은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신소설이 구소설에 비해 매우 ‘사실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소설의 작가들은 스스로를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인 ‘기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 이해조는 자신의 작품이 ‘모두 현금에 있는 사람의 실지 사적으로 새하얀 낭성을 한 구절도 기록지 아니하고 정녕히 있는 일동일정을 일호차작 없이 편집’한 것(『화의 혈』, 한국신소설전집 2권, p.349)이라고 말하면서 작품내용의 현실성을 강조하였다.

4) 지금까지 발행된 신소설 전집은 『한국신소설전집』(을유문화사, 1968)과 『신소설·번안(번역)소설』(아세아문화사, 1978),

몽'을 목적으로 기획된 『가정잡지』를 텍스트로 하여 그 안에 담긴 축첩제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sup>5)</sup>

‘과정’과 ‘실천지향’의 언어수행을 의미하는 담론의 효과는 ‘사회적 각본’의 생성이고, 이 사회적 각본은 일상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틀로 정립된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다면 개화기 가족을 둘러싼 담론의 분석은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가족, ‘동태적인 특성’을 수반하는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가족구조가 보여주는 특징은 단적으로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있는 ‘비동시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태라 할 수 있는데(이정옥, 1997:180) 이러한 전통과 근대의 혼저 즉 ‘비동시성의 동시성’이야말로 현재의 가족을 읽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화기는 이러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실현되는 시발점이자 오늘날의 이러한 일면의 단상을 읽을 수 있는 기원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개화기’의 가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오늘의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윤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개화기의 축첩제 담론의 분석은 여성이 담지자가 되어 주체적으로 여성해방을 부르짖기 이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근대여성해방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친 입센, 엘렌 케이, 콜론타이, 엥겔스, 베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나혜석, 김일엽(원주), 김명순, 강경애, 허정숙 등의 신여성들이 ‘성윤리’를 화두에 올림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본격적으로 부르짖기 이전의 논의를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각있는 여성’이여! 타주적 해방에서 자주적 해방으로 매왕 돌진 할지이다!’(신일용, 1922, 서정자, 1999:53에서 개인용)라는 1920년대의 주장에서처럼 그 ‘타주적 해방’이라 할 수 있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개화파 지식인들이 여성의 굴레로 비난했던 축첩제를 어떻게 ‘담론화’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 개화기 이전의 축첩제

이 연구의 초점이 되는 개화기 축첩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초 ‘축첩제’가 위정자들에 의해 어떻게 조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을 건국한 신홍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국시로 한 유교적 가족윤리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는 ‘주자가례’를 준거틀로 하여 고려말 관습으로 내려오던 관혼상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단행하였는데 그 하나가 중혼금지(重婚禁止)로서 ‘예가무이적(禮家無二嫡)’의 윤리적 잣대로 고려의 유처취처(有妻娶妻)의 관습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즉 태종 13년(1413년)에 중혼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둘째 이하의 부인들을 일괄적으로 첩이라 규정하였는데(『태종실록』, 17년 2월 경진) 이것은 곧 한 남자에게 한 여성의 적처(嫡妻)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초기에는 선처(先妻)와 이혼하지 않았거나 선처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처를 취했을 경우에는 후취의 출신이나 성례(成禮)여부를 막론하고 첩으로 논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그리고 『신소설 전집』(계명문화사, 1987)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을유문화사에서 발간된 『한국신소설전집』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계명문화사에서 발간한 『신소설 전집』은 그 작품선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황정현, 1992: 13) 변역소설과 판소리소설의 개작이 많이 포함된 『신소설·번안(번역)소설』은 이 연구의 연구목적과 벗어나는 작품을 상당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한국신소설전집』을 ‘전집’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 5) 개화기의 신문과 소설 그리고 잡지의 발간주체는 대부분 개화지식인으로서, 이들은 서구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면서 민지(民智)의 계몽에 주력하였다. 이들의 축첩제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당시 개화기 전반의 축첩제 담론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될 수 있으나, 이들의 사고와 사상이 개화기 이후 일제식민시기를 비롯한 향후 조선의 상황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들이 지향했던 윤리의식은 일상의 사람들의 윤리의식의 판도를 달리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들이 윤리의식은 일상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언행에 접목되어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들 담론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준수하려고 하였으며(장병인, 1997:75), 관인이 기처(棄妻)하거나 축처(蓄妻)할 경우 관직이 박탈되는 것으로 그 죄를 묻는 등 강경책으로 중혼금지를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중혼금지의 법령은 처와 첩, 그리고 적자와 서자의 지위를 차별화 하였고, 이것은 곧 첩과 서자에 대한 합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졌다. 특히 태종이 자신의 왕위계승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적서분간(嫡庶分揀)을 주장하였으며, 왕실에서의 적서차별은 왕실 이외의 신분계급에서도 서열을 차별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첩의 자손인 서열에 대한 차별은 중앙 정부의 강제책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태종 15년(1415년)에는 서열 자손의 현직 임용이 금지된 후(『태종실록』 15년 6월 경인) 마침내 성종 14년(1482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재가 등으로 두 남편을 섬긴 부녀의 자손과 함께 서열자손들의 문과 및 생원·진사과의 응시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서열금고의 법조문이 명문화되었다(『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 이러한 서열금고법의 제정으로 서열의 지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서열금고법의 제정 초기에는 서열들에게 현직으로의 취임과 문과와 생진과의 응시가 금지되어 그들이 비록 음서등으로 입사하더라도 한품제도로 그 승진의 한계를 설정하였는데 결국은 이러한 공직취임의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계사문제에까지 차대를 받게 되어 아무리 장자로 태어나도 서열들은 한 가정의 종사를 잊지 못하고 그 결과 막대한 상속재산을 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락하게 된 서열들은 밖으로 '사부지직(士夫之職)'을 취득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안으로는 상속재산조차 받을 수도 없는 '갈곳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이종일, 1987:66).

그러나 조선초의 중혼금지가 곧 일부일처제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축첩제를 용인하는 것이었으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대부가의 축첩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남녀유별의 관념으로 인하여 여성의 격리는 남편의 축첩을 조장하였는데, 즉 출관 또는 출향의 경우에 부부 동반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아내로 하여금 구고(舅姑)에 일하게

하고, 입지에 있어서 첩을 축하는 풍이 만연하였다(김두현, 1949:588-589). 따라서 일처다첩의 부부관계는 가족내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기에 위정자들은 아내의 칠거지악 가운데서도 가장 중(重)한 것이 무자(無子)와 투기라고 하면서 계사존속을 위한 축첩을 합리화하는 한편 투기엄금의 윤리의식을 여성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축첩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잠재우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을 위한 규범서에는 한결같이 부도(婦道)로서 투기엄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우암 송시열 선생이 시집가는 딸에게 준 계녀서에는 '여자가 지아비를 섬기는 중 투기 아니 함이 으뜸 행실이니 일백 첩을 두어도 불만하고 첩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노기를 두지 말고 더욱 공경하여라'고 하면서 투기를 '부인의 제일 악행'으로 가르치고 있다(『우암선싱계녀서』).

이처럼 부덕으로서의 투기엄금이 여성의 윤리의식으로 내면화되는 가운데 일상에서는 양반관료를 포함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처 이외에 첩을 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조선 습관에 일처(一妻) 일첩(一妾)을 들은 남자의 흔한 일'(『탄금대』, 전집 5권, p.260.)이 되어 축첩은 묵인된 또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 매김 하였다.

### Ⅲ. 개화기의 축첩제 담론

#### 1. 타파되어야 할 가족제도로서의 축첩제

조선의 축첩제에 대한 최초의 서구적 시각의 질타는 서학(西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784년 이승훈은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후 귀국해서 이벽과 권일신에게 천주교 영세를 줌으로써 조선에 신앙공동체로서 교회가 탄생하였는데 이때 교회는 천주의 피조물인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교회는 당시의 여성에게 부여된 차별적 대우를 부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억혼, 과부개가금지와 함께 축첩제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따라서 '첩을 둔 사람이 신사(神父)가 한번 분부하신 후에 고집하여 순명치 아니하면 공소 때에 신사(神父) 앞이나 이 모양으로 지내다가 죽으면 연미사와 교우의 연도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

면서(백규삼, 1982:313) 남성의 축첩을 교회법으로 엄금하였다. 실제로 주문모 신부는 축첩한 신자에게 성사(聖事)를 주지 않으면서(달래 지음 안용렬 외 옮김, 1979:417-418), 교회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축첩생활을 계속 할 경우에는 신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였다. 이처럼 서학은 첩을 내보내는 일이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일로 규정함으로써 신앙인들이 일부일처의 부부관계를 일상의 삶 안에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서학이 남성의 작첩(作妾)을 근절할 것을 서두르려 하여 개화기에 지식인들은 축첩제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제기하였고, 이에 조선이 문명국이 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서 축첩제는 타파되어야 할 대표적인 가족제도가 되었다. 따라서 1894년 개화과 정부에 의해 단행된 갑오경장에는 반상의 신분제를 폐지하는 등의 사회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가족제도의 개혁을 담고 있었는데 그 하나가 '적처와 첩에 모두 자식이 없는 연후에야 비로소 양자의 입률(入率)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서열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화과 지식인들은 축첩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서열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축첩제를 근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담론은 먼저 정부 관인에서부터 여항(閩巷)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처첩 두기를 좋아하여 심한 경우 정실 하나에 별방이 삼사처라고 하면서 일부이첩을 대장부의 당연한 일로 여겨 아침밥과 저녁죽을 먹을 만한 사람이라면 의례이 첩을 두고 있는(제국신문, 1901.1.31.) 당시의 만연된 축첩의 실상을 비난하였다. 이제 가계계승이란 미명아래 묵인되었던 축첩제는 그릇된 것으로 정의되었고, 남성의 작첩을 묵인하는 일상의 관습은 계몽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개화기의 경제적 상황은 딸을 첩으로 파는 부모를 낳을 정도로 피폐하였고, 궁핍한 삶의 조건 아래에서 딸이 부모와 그 가족의 유용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과 신소설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더욱 피폐된 서북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짙었는데<sup>6)</sup> 당시에는 적지 않은 부모가 딸을 기생이나 첩으로 팔아야만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sup>7)</sup>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와 같이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유교적 성윤리를 급격히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았고, 성윤리의 붕괴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정절윤리의 강조와 함께 첩을 비난하면서 더불어 축첩제 폐지를 주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기에 당시의 지식인들은 일상에서의 축첩을 근절시키고자 축첩으로 인한 그 폐해를 강조함으로써 축첩의 부당함을 설명하였다. 담론은 축첩은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면서, '친자의 의(誼)를 파'하고 '문족의 난화(亂禍)를 양성'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패행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폐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문명사회에서는 이미 축첩의 폐풍이 근절되었다고 하면서, 축첩제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가문, 사회, 국가라는 연장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를 열거하고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10.5.8.). 이처럼 담론은 축첩제의 폐지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개화기라는 위기적 시대상황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구했던 '국가의 경쟁력'을 목전에 내세움으로 축첩제의 부당함에 대한 당위성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 2. 새로운 시각으로 비난받는 축첩제

그럼, 개화기의 담론에서 축첩제는 무엇을 근거로

6) 이러한 일면은 신소설 「능라도」(전집 5권, p.91)와 독립신문 1897.10.2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19세기 이후 정부의 전정, 군정, 환국의 삼정문란은 더욱 극심해지면서 농민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화되었고, 1876년 일본과 맺은 '조일수호조규'로 말미암아 조선의 항구에서 양곡의 수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선의 곡물은 싼값으로 일본에 대량 반입되었으며, 1890년 이후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국내 미곡의 필요량이 급증한 일본은 이러한 수요를 조선의 미곡으로 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선의 미곡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박찬승, 1985:34-38). 그리고 이러한 피폐한 경제적 상황은 조선내 열강의 이권침탈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1890년대 이후 더욱 가중되었다.

비난되고 있는가? 담론은 새로운 시각으로 축첩제를 조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구의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합리적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축첩제는 합리적 이성이란 도마 위에서 해부되기 시작하였다.

### 1) 이중적 성윤리의 모순으로서의 축첩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중심인물인 박영효는 일본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중, ‘개화에 대한 상소’를 국왕에게 올렸는데, 이 글에서 그는 ‘남녀부부는 그 권리가 균등하다’는 전제 아래, ‘무릇 남녀가 그 질투하는 마음은 같은데 남자는 유처취첩(有妻取妾)하면서 혹 그 아내를 속박하고 혹은 그 처를 쫓아내며, 아내는 그렇다고 개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니 이것은 법에 있어서 여자의 간음만을 금하고 남자의 난잡함을 금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라.’(최속경·정세화, 1976:331-332에서 재인용)고 하면서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윤리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박영효의 주장은 개화기 지식인들의 담론에도 그대로 흡수되었다. 즉 ‘남녀는 비록 다르나 어찌 차등의 분별’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천부적 권리로써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였으며(제국신문, 1899.10.14.), 이러한 남녀동등의 논리는 성윤리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우리 동양의 풍속은 조고로 녀인을 사나회 보담 낮게 알아 턴리가 사나회는 높고 녀인은 나즌 줄로 아니 ... (이로) 인하여 싱긴 폐단을 말습하라면 이로 다 셀수 업스나 그 중에 데일 큰 폐단을 말흐면 ... 첫재는 첩 두는 폐단이니 당초에 하늘과 땅이 마련되고 만물이 싱긴 줍에 사람은 데일 신령혼 령혼을 타서 한 사나회와 한 녀인이 싱겨서 비필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이 다 한남편과 한 녀인이 부부됨이 턴리에 합당흐니 녀인이 두 남편을 두는 것도 올치안코 사나회가 두 계집 두는 것이 올치 안이허겨늘 우리 나라는 녀인을 낮게 아는 까닭으로 녀인이 남편을 두 셋을 두면 큰 변으로 알고 ... 사나회는 장가든 후에 의례히

첩 두기를 시작하여 칠팔명식 첩을 두는 사람이 혼이 있고 지금 세상에는 첩을 두지 안이 혼 사람은 몇명이 업서 첩을 안이 두는 사람은 사나회가 안이라 하여 못 싱긴 사람으로 돌리니 ... (『가정잡지』, 1년 7호.)

담론은 남존여비의 폐단이 축첩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면서 여인이 남편을 두 세명 두는 것은 큰 변으로 알면서 첩이 없는 남자는 사나이가 아니라 ‘못 생긴 사람’으로 돌리는 작금의 실상을 비난하면서 남녀간 다르게 적용되는 성윤리의 갖대를 문제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담론은 축첩이 더 이상 ‘남자의 특권’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녀자에게는 정결의 윤리를 강요하여 청춘과부의 개가도 불허하면서도 남자에게는 부인 이외의 첩을 두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는 남녀간 이중적 성윤리에 대한 ‘모순과 불공평’을 지적하고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10.2.). 따라서 개화기에 이르면 작첩(作妾)한 남자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담론은 여성으로서 남의 첩이 되거나 남의 사나이를 음행에 범하게 하는 인생은 죽어서 그 사나이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만큼 악하고 천한 일이라고 못박으면서 남성은 우선 자신의 몸부터 ‘정결’하게 가져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남편과 아버지의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독립신문, 1896.6.16.).

이와 같이 개화기의 축첩제 담론은 서구 계몽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남녀동등’을 논하였고, 그 맥락 안에서 남성의 ‘정결의 도리’와 함께 당시의 성별에 따라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성윤리의 모순이 언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 2)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아내의 투기

개화기 축첩제 담론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것은 ‘아내의 투기염금’이란 윤리의식에 대한 거부이다. 담론은 남편의 작첩에 대한 아내의 투기를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산으로 인정하면서, ‘투기염금’은 감내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 지키기 어려운 윤리의식으로 조망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담론은 문명개화의 지표로서

‘일부일처’의 부부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일부일처’의 부부관계는 새로운 윤리의식을 수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면을 「귀의 성」의 작은돌과 점순 부부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은돌과 점순 부부는 남편의 작첩을 묵인하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간의 화목을 찾을 수 없음을 직시하면서 다음과 말하고 있다.

(점순) 「강짜는 빌어먹을 년의 강짜를 하고 있어. 나는 순돌 아버지가 다른 계집에게 미쳐 날뛰는 것을 보면, 나는 다른 서방 얻어 가지, 밤낮 계걸계걸하고 있을 망할 년 있나.」

(작은돌) 「이애, 그것 참 속 시원한 소리를 하는구나. 하나님 사람이 내실 때에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 남녀가 다를 것이 무엇 있단 말이나. 네가 행실이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두 계집을 두거든 내가 나를 버리는 일이 옳은 일이다. 두 서방이니 두 계집이니 그까짓 소리도 할 것 없지. 두 내외가 의만 좋으면 평생을 같이 살려니와, 의가 좋지 못하면 하루바삐 갈라서는 것이 제일 편한 일이라. 계집 둘 두는 놈도 망할 놈이오, 시앗보고 강짜하고 있는 년도 망할 년이라. 요새 개화 세상인 줄 몰랐느냐.」 (「귀의 성」, 전집 1권, pp.170-171.)

작은돌은 남녀는 동등하다는 논리로 남편의 작첩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편의 작첩에 한숨만 쉬는 아내는 되지 않겠다는 아내 점순의 말에 ‘속 시원한 소리’라고 답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문명적 사고로 이름 지워졌던 기독교적 사고가 이미 그의 의식 깊숙이 침식되어 있는 작은돌은 ‘하나님이 사람 내실 때’에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의 평등적 존재이기에 남녀의 차별은 부당하며, 그러므로 윤리 역시 남녀간 다르게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부인의 잘못된 행실이 ‘소박’의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듯이, 남편의 작첩 역시 이혼의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남편의 작첩은 부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특히 부부간의 애정이 일부

일처의 부부관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그는 부부관계에 있어 ‘두 내외가 의만 좋으면 평생을 같이 살려니와, 의가 좋지 못하면 하루 바삐 갈라서는 것이 제일 편한 일’이라고 하면서 아내의 행실이 옳지 못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고, 또 반대로 남편이 두 계집을 두면,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서방’ 이니 ‘두 계집’이라는 말은 할 필요조차 없으며, 요새 같은 ‘개화 세상’에 ‘계집 둘 두는 놈’도 망할 놈이고, ‘시앗보고 강짜하고 있는 년’도 망할 년이라고 단죄하고 있었다. 이처럼 작은돌은 부부관계의 지속과 해체의 결정요인으로 ‘부부애’를 제시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외도를 비난하고 있었다.

일찍이 이해조는 그의 ‘가족윤리 혼인론’에서 ‘남녀애정은 본최친절(本最親切)’하여 그 한사람이 애정을 타인에게 옮기면 질투의 마음이 생겨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이해조, 1909:27-29)고 하면서 남편의 작첩에 대한 부인의 투기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남편의 작첩이 아내의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아내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논리는 축첩이 부부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축첩제가 공공연하게 인정되었던 이전 사회에서도 ‘첩의 존재’는 부부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첩으로 인한 부부갈등은 부인으로서의 덕을 갖추지 못한 부인의 존재로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후덕한 부인이 가장 멀리 해야 하는 ‘칠저지악’의 하나로 ‘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즉 ‘가도의 성패와 자손의 흥망’은 ‘첩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첩에 대한 부인의 ‘투기’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부인들에게 첩에 대한 투기를 절대적인 금기사항으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축첩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남편의 애정을 공유해야 하는 첩에 대한 아내의 투기는 인간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임이 분명하다. ‘가문’의 안녕을 위하여 아내에게 부덕으로 강요된 ‘투기금지’는 개화기에 이르러 그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사람이 가난하고 곤궁할 때에는 주기에 안히의 덕으로 옷도 벗어 낮고 조식도 벗어 먹고 지내 더니 조금치라도 낮게 되야 돈뿐이나 싱기거드면 그 돈을 가지고 고치 고싱하던 안히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시 인정에도 맞당하고 의리상에도 올케놀 돈 곳 싱기거드면 고치 고싱하던 안히는 니져버리고 모로던 계집을 벗어 그 돈을 가지고 고치 쓰고 그 안히는 그저 고싱만 홀뿐 아니라 남편이 잘 되었다고 집안에 첩이 하나 싱겠슨 즉 그 안히의 모습에는 차라리 곤궁한데 있는 이만 못흔지라. 곤궁할 때에는 의식은 어렵드릭도 남편이 다른 계집은 업섯거니와 유아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다가 조금 낮게 된 후에는 갖치 고싱하던 사람은 들지가 되고 짠 계집이 드러와 남편의 사랑함과 남편의 돈을 벗어쓰니 었지 원통흔 모습이 업으며 말은 아니 흐드릭도 도로혀 잘된 거슬 후회홀 모습이 업스리요. (독립신문, 1896.6.16.)

이상의 담론은 아내의 입장에서 '첩'은 남편의 '사랑함'과 남편의 돈을 '벗어쓰'는 존재이므로 남편의 작첩으로 부인에게 '원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종부(從夫)하는 열녀를 신문과 소설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투기엄금'은 가족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윤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버거운 윤리로 인해 가족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망되고 있었다.

#### IV. 개화기 축첩제 담론의 제 문제

개화기 지식인들은 문명의 한 지표로서 축첩제를 근절시킴으로써 일부일처의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를 완성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축첩제 담론의 담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축첩제 즉 정절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첩과 작첩한 남성에 대한 비난에 몰두하였고 이러한 논리는 일상에서 갈

등의 씨앗으로 발화되고 있었다. 이제 축첩제 담론의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축첩제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처첩분별과 이러한 시각의 문제점

축첩제가 묵인되었던 조선사회에서는 처와 첩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법률적 제도에 의해 이러한 차별은 첩의 자자손손에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차별은 법적·경제적 불이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생과 마찬가지로의 '비천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일면은 개화기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는데, 당시 담론에서 제기되는 '축첩제'에 대한 비난은 곧 '첩'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담론은 첩을 '사나이의 희롱하는 물건'으로 정의내림과 동시에 '대한 부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매우 수치스러운 존재로 규정하였다(독립신문, 1898.2.12.).

특히 개화기 피폐한 경제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붕괴의 속도가 빨라진 정절윤리는 첩을 더욱 비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당시 많은 유녀(遊女)들의 매음이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통하여 몰락된 유교적 성윤리를 가름할 수 있다.<sup>8)</sup> 사회경제적 혼란은 일상을 둘러싼 삶의 조건들을 궁핍하게 만들었으며, 이 궁핍함에 비례하여 유교적 성윤리는 급격히 무너졌다. 매음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정절윤리를 더욱 강조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축첩제의 비난 담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첩의 지위를 더욱 비천한 것으로 규정짓게 하였다. 따라서 개화기 담론 역시 첩에 대한 천대는 그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식들도 세상의 천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논리는 종모법(從母法)을 통하여 서열차별을 강화시킨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열에 대한 차별이 갑오경장의 개혁안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할지라도 서

8) 이러한 일면을 황현의 『매천야록』의 한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다. '경무사, 신태휴(申泰休)는 유녀(遊女)들을 모아 구

얼은 분명 친한 존재이며, 더 나아가 담론은 이를 강화시킴으로써 축첩제의 악풍을 근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담론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그 사람의 의복만으로도 그 지위를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하여 어떤 예우가 옳은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외관만으로도 '정실과 친첩'의 등분을 뚜렷이 구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고혼 사름이 되어 남의게 첩노릇 하는 녀인은 하늘이 그치 품부흔 권리를 직회지 못하는 인심이라. 불가불 혼 등 친혼 사름으로 뒤접하여야 세상에 명분이 발나서 사름이 비로소 텃당 혼 명분을 호리기를 붓그러히 녀일지라 ... 우리 나라에서는 녀편네가 놉의 첩노릇 하는 것슬 붓그러히 녀이지 안코 의례히 맛당흔 일노 알아 무슬 일이며 어니 좌석이던지 거릿길 거시 업스니 이전에는 반상 등분이나 잇스즉 오히려 관계가 덜 하였거니와 지금은 반상 등분을 업시하고 본즉 정실과 친첩의 등분이 업스면 명분이 자연 혼합하키 괴악흔 풍습은 곳칠 날이 업는지라. ... 그럼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녀인회를 설치하던지 녀학교를 설립하던지 맛당히 규칙을 달나 마련하여 놉의 첩노릇 하는 계집들은 일절 동등권을 주지 말어 등분을 불히 하여야 ... 친첩노릇 하는 녀인들이 저의 몸이 세상에 친혼 인심 되는 것슬 붓그러히 알아 괴악흔 풍속이 차차 덜 날 터이니 어제

는 붓그러운 줄을 모르고 괴악흔 힝습을 힝하였거니와 오날은 알고 힝실을 곳치거든 곳동등 부인네로 뒤접을 하였스면 몇빅 년 유전하는 악습이 가히 변홀지라. 무슬 연회에던지 부디 첩은 다리고 가 참회하지를 마시오. 만일 남의 정실네가 동석에 잇스면 이는 곳 그 부인네들 육하는 모양이니 필경 시비가 잇을 터이오 놉의 첩노릇 하는 거시 붓그러운 줄을 알아 텃당흔 명분이 자연 불아질 터이니 범연히 들 보아 넘기지 마시오. (제국신문, 1898.11.7.)

이상의 담론은 첩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 존재이므로 친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여성에게 부여되는 동등권을 첩에게는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대우를 통해 친첩은 자신의 친한 인생을 자각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작금의 이 괴악한 풍속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개화기 규문안 여성에게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던 가장 대표적인 바깥세상인 '녀인회'와 '녀학교'에서 첩이 발을 들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첩 신분의 여성을 '인권' 없는 존재로 규정시키려고 하는 가혹함을 엿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처의 지위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첩의 지위는 자연히 낮아지고 친해지는 결과로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sup>9)</sup>

조선이 문명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로 부각된 첩은 그 이전보다 더욱 비천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처첩간의 차별을 강화시킴으로

역을 달리 해서 살아가도록 하였다. 구제도는 외국 남녀와 교간(交奸)하는 자는 죽였으나 개항 후로 금지하였던 것이 조금 풀렸으며 이미 동서양이 엇비슷하게 처하자 드디어 도저히 막을 수 없이 되었다. 이윤용(李允用)은 서양 여자를 첩으로 삼았고 송병준(宋秉駿)은 일본여자를 첩으로 삼았다. 왕왕 외국여자들을 축첩하지 못한 것이 못났다고 생각되었으니 경향각지의 유녀(遊女)들은 일본여자 행세를 하다 금방 서양여자 행세를 하여 양쪽을 비호하며 내방객을 기다려, 보는 사람들이 낮을 가렸다. 신태휴는 이것을 미워하여 힘써 유녀들을 몰아서 한 곳에다 모아 살게 하고 일반 국민들과 함께 섞어서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야국 국민들이 출입하는 곳은 그 문에 상화가(賞花家)라 붙이고 외국인에게 매음하는 자는 매음가(賣淫家)라 붙이게 하였으나 마침내 능히 개혁하지 못했다. 인천항에 도화동(桃花洞)이 있는데 한 마을이 모두 매음가로 외국인으로 방탕한 자들은 금(金)을 휴대하고 대문을 찾아와서 장사꾼들이 물건 사라고 떠드는 것 같았다고 한다'고 하면서 당시의 유녀들의 문란한 성윤리를 전하고 있다.

- 9) 이 신문기사에 대하여 평안도의 한 여성 노인은 첩도 그 됃됨이에 따라 '육색'을 구분해야지 단지 '첩'이란 지위만으로 내려지는 사회적 질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제국신문, 1898.11.10)

써 축첩제를 타파하고자 하려는 다음의 담론은 아무 리 학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첩’이란 지 위는 ‘본처’의 지위에 비해 매우 ‘천한 것’이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다.

近者 或 妾世界에서 文明을 誤解하며 人道를 妄想하여 所謂 妻妾同等主義를 仗호고 女子教育을 主唱호여 曰 妾도 學問이 有호고 知識이 有호면 足이 正室과 平等도 되고 自由도 得호터인즉 此主義로 女子를 教育하여 正室의 壓制를 아니 받는 妾이 되게 호자 한다 호니 噫라 真正호 文明 真正호 人道가 發達될수록 첩의 賊辱은 尤甚호며 妾의 虐待는 尤甚호는 바어늘 … 最終에 吾儕는 凡 此妾身勢를 作호 女子同胞에게 一告호노니 果然 平等 自由를 樂호거던 아모도록 此等誤解의 主義를 執지 말고 真正한 平等 自由의 人物이 되어 後進女子를 引導호되 반다시 妾을 作지 말나 호며 後進女子를 警戒호되 반다시 첩을 作지 말나 호야 女子界의 新風潮가 作호를 祝호노라. (대한매일신보, 1910.5.8.)

즉 정절윤리가 살아있는 당시 사회에서 첩에 대한 비난에는 ‘첩이 된 여성’과 ‘실행을 일삼는 첩’ 그리고 그 첩의 동류집단으로 규정되고 있는 기생사회에 대한 질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과 천대는 첩들간의 내적 연대감을 고양시키게 되어 ‘첩사회’를 결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화기 말 첩사회의 결성은 ‘문명정보 더 될 수록 첩의 천대 자심함은 윤리원칙이 아닌가. 부녀계에 첩사해도 한국내에 초견이오’(대한매일신보, 1910.5.8.)라고 하는 개탄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다시 첩사회의 응집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양반 고관의 애첩들이 경제적인 여력과 권력을 소유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지니고 있음은 이들이 양정여자교육회 및 양정여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의 교장으로 친위부 장관 이병무의 첩 최성경이 추선(推選)되는(대한매일신보, 1910.5.10.) 등 구체적인 활동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학교

나 부인회를 설립하는 등 구국을 위한 계몽운동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첩에 대한 비난과 천대는 첩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며, 이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반대로 이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정절윤리와 적처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증대되었다. 이와 같이 첩이 조선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만 한다는 주장에는 본처의 지위가 확고해지면 질수록 첩의 지위는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기존의 방식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처첩의 분별을 통해 축첩제를 폐지시키려는 이런 방법은 간과할 수 없는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축첩제에 대한 비난의 화살과 악풍 폐지를 위한 해결책이 개인에게만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여성의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혼속에서도 지참금이 언급되는 매매혼이 만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첩이 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첩이 되었다기보다는 부모의 강요나 혹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한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정절윤리’를 통한 개인의 도덕성의 회복만으로 축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축첩제를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축첩제의 형성 배경이 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와 축첩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구조 안에서의 축첩제를 조망하지 못한다면 그 해결책 역시 불합리한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윤리의 내면화라는 개인적 수준에서만 머무르게 된다. 그러므로 첩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못할 노릇’임을 강조하면서도 언급되는 해결책은 ‘아무쪼록 학문 배워 외국부인 동등되게 일심으로 협력하오’(제국신문, 1898.11.10.)라는 공허한 연설조의 결론만이 되풀이되면서 ‘첩이 되지 말라’는 매우 피상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소설에 나타난 처첩갈등의 해결책 역시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이는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채 매우 관념적인 수준에서 유교적 여성 윤리의식의 부활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이러한 일면을 「귀의 성」에서 확인해 보자. 축첩제의 가장 일차적인 피해자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작가 이인직은 남편 김승지의 작첩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김승지 부인이 갖는 ‘아내’로서의 패배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작가는 남편의 작첩으로 ‘세상에 고생치고 시앗두고 근심하는 고생 같은 고생이 또 어디 있겠느냐. 나는 시앗만 없으면 돈 한푼 없더라도 아무 근심 없겠다. 내 손으로 바느질품 팔아 먹더라도, 영감과 나와 단 두 식이야 어떻게 못 살겠느냐」(「귀의 성」, 전집 1권, p.175.)고 하는 아내로서 갖는 김승지 부인의 한탄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녀를 후덕하지 못한 악인으로만 묘사하면서 그녀가 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처첩갈등을 다룬 소설들이 처=선인, 첩=악인이라는 무조건적이고 단순한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인직은 자식도 없이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김승지 부인에게 있어 김승지의 작첩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패배감을 맛보게 하였으며, 이 패배감이 그녀를 악녀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으며, 다만 첩에 대한 김승지 부인의 투기를 악인의 악독한 행위로 정의 내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대부가의 아내로서 첩에 대한 ‘투기 엄금’을 지키지 못한 악인 김승지 부인은 강동지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와 마찬가지로 ‘투기’한 아내에 대한 응징으로 가족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에는 사회구조 및 제도에서 기인된 축첩제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오류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특히 현 세계의 거울이라고 여겨지는 ‘소설’에서는 가족갈등의 원천이 되는 축첩제를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인내와 도덕성의 회복만을 강요하는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은 개화기 작가의 식이 갖는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당시 일상의 이중적인 윤리의식의 반영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 2. 축첩제 담론의 ‘모순’과 그로 말미암은 가족갈등

개화기 축첩제를 비난하는 주요한 잣대는 서구적 잣대였다. 지식인들은 열강 즉 문명한 나라에는 일부일처의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가 정립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축첩제를 망국의 요인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일처의 부부관계가 유교적 윤리질서를 부인함과 동시에 서구적 부부윤리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음의 사건에서 알 수 있다.

영의정을 지냈던 홍순목의 손녀이자 홍만식 참판의 딸이 조동운에게 시집갔으나 결혼한지 몇 달이 못되어서 삼촌의 죄로 말미암아 시집에서 쫓겨나 ‘홀로 혼서지를 품에 품고 밤낮으로 울며 여주 땅에서 목숨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에 독립신문은 이 ‘원통한 여편네’의 소식을 전하면서 조동운이 개인의 힘으로 이 부인의 원통함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정부가 조동운에게 명하여 이 부인을 ‘도로 영접하여 별도로 부인을 삼계’하고 또 지금 있는 부인을 부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특별히 조씨는 부인을 들을 가지게 명’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독립신문, 1897.6.10.). 따라서 이 사건은 일부일처의 부부관계의 정립보다는 유교적 윤리의식의 수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당시의 윤리의식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불쌍한 여편네의 친구임을 자처하면서 그 어느 신문보다도 급진적인 태도로 여성의 지위를 개탄하면서 가족제도의 변화를 추구했던 독립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해결책은 ‘일부이처’의 부부관계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은 한 여인에게 아내의 지위를 줌으로써 그 여인의 불행은 끝이 난다는 단순한 해결책에서 개화기 야만의 풍속인 축첩제는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이처의 부부관계나 남편의 축첩은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계몽소설의 특성을 다분히 가진 신소설 역시 이러한 논조로 유교적 가족윤리 특히 아내의 부덕(婦德)을 강조하고 있었다. 행복한 결말로 작품의

끝을 맺으려고 했던 「농라도」에서는 그 말미를 정린에게 두 여자 즉 도영과 화자가 한꺼번에 아내가 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안의 성」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봉자에게 내려지는 행복한 귀결은 상현의 부실(副室)이 되는 것으로 맺고 있는데, 그는 벌써 정애와 혼인한 사이였다. 또 「금강문」에서는 정진의 어머니가 정진을 경원이 아닌 다른 규수와 혼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이 경원과 혼례를 치르자 이미 혼약했던 규수가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개화여성이라고 자처했던 경원은 타인의 본을 받을 만한 이상적인 여성으로서 유교적 부덕을 통해 일부이처의 부부관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신)「이애, 네 말이 대단히 가상하다마는 한 사나이가 두 처를 장가드는 것이 어데 있느냐?  
(경원)「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적 성인 요임금 딸아황·여영은 형제의 몸으로 한 순임금을 섬겼거든, 저희 두 사람이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할 것 무엇 있삽니까?」(「금강문」, 전집 4권, p. 258.)

이러한 일면은 신소설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중행인」의 경우는 은인인 남옥을 첩으로 돕으로써 처첩갈등은 개인의 도덕성만으로, 즉 선인끼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로 규정되고 있다. 맘씨 고운 본처는 남편의 은인에 대한 고마움을 남편의 ‘첩’이 되게 함으로써 갚으려 하고 있다.<sup>10)</sup> 이외에도 「검중화」의 이담용의 아내 윤씨부인은 섬옥과 봉회를 불러 ‘아무쪼록 조심하여 피차 시기심을 두지 말고 각기 맡은 직분을 극진히 하여 가정이 요란치 않도록 힘쓰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첩으로 거두었고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집안에 화기가 용용’(「검중화」, 전집 6권, p.483.)하게 되는 것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었다.

이처럼 개화기 담론에서 축첩의 부당함이 논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상에서는 아내의 투기엄금을 바탕으로 남편의 작첩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아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첩의 존재는 분명 가족불화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므로 축첩제를 묵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의 투기엄금이란 윤리의식을 필요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첩에 대하여 의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덕’을 갖춘 부인을 통해 행복할 결말을 이끌어내는 신소설을 통하여 ‘투기 엄금’의 윤리 강령의 당당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화기 지식인들에 의해 형성된 축첩제 담론은 축첩제를 암흑시대의 악풍으로 규정하면서 첩과 작첩한 남성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목소리로 아내의 도리로서 유교적 부덕을 여전히 강조하는 이중적 구조를 띄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의 아름다운 윤리강령으로서의 유교적 부덕은 남편의 작첩으로 인한 가족갈등의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선인으로서의 개화 여성은 축첩을 비롯한 당시의 가족제도와 윤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부덕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갈등을 끌어안으면서 개인의 희생을 통해 이러한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가의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소설의 다수의 작품이 행복한 결말을 위하여 악인의 여성이 선인 아내의 호의에 힘입어 일부이처의 부부관계로 작품을 끝맺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말에서 개화기 지식인들은 당시의 가족제도와 가족윤리의 그릇됨을 서구적 잣대로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 기존의 잘못된 윤리와 제도의 모순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논리적이지 못한 해결책으로 이어졌는데, 당시의 가족제도와 윤리의 개선을 계몽을 통해 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담론이 갖는 논리적 모순은 일상에서

10) 백씨부인이 비록 여자일 법해도 넉넉한 의견과 온후한 성정(性情)이 여간 남자가 비치지 못할 바라, 자기 영감께 간절히 고하여 남옥을 작첩(作妾)케 하고 차옥 귀국하기를 기다려 이왕 경력을 일호 개의치 아니하고 누누히 말하여 숙자를 취하여 백년(百年)을 맹세케 하였더라. (「우중행인」, 전집 3권, p.123)

그 모순이 더욱 극대화되면서 가족갈등을 증폭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개화기 지식인들에 의해 형성된 축첩제 담론은 축첩제의 타파를 주장하였으나, 축첩제가 유발되고 있는 사회적 요인을 냉철히 비난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일상의 여성에게 첩이 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체계적인 비판 구조를 가지지 못한 채 ‘첩이 되지 말자’라는 어설픈 구호는 개인과 가족의 심각한 갈등으로 심화되었다. 이제 이러한 경우를 신소설 「명월정」을 통해 살펴보자.

「명월정」의 채홍은 졸업식 날 ‘서양에 유학하여 여자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여자 교육계에 헌신한’ 며려 김씨로부터 ‘문명의 어미’ 될 기초로서 첩이 되지 말자는 연설을 듣고 채홍은 그녀의 말처럼 부모가 구습으로 ‘남의 첩으로 팔아먹으려’ 한다면 죽어도 이 핏박을 받지 않기로 맹세한다(「명월정」, 전집 6권, p.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홍은 자신을 기생 조합에서 구해준 허원의 첩이 되어서 부모의 원수를 갚게 된다. 이후 그녀는 허원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송’을 낳음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게 되지만, 첩이 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이제는 가슴에 맺히고 서린 슬픔을 다 풀었지마는 나의 일신상의 명예와 흠점이 이 세상에서 살고서는 씻을 수 없으니 이리 할 밖에 없다’고 하면서, 덩실 덩실 웃는 아들 송을 뒤로한 채 자살을 하고 만다.

… 학교 교육은 몇 해 동안 받아 인류된 이치와 도덕이 어떠한 것은 아니다. 대저 남자의 덕은 의에 있고 여자의 덕은 절개에 있나니, 그런고로 여자가 절개가 없으면 금수와 무엇이 다르리요?… 첩이 절개를 잃고 살기를 탐하여 문벌에 점을 끼치는 것이 어찌 죽는 것보다 낫다 하리요? … (「명월정」, 전집 6권, p.149.)

이상은 채홍이 허원에게 남긴 유서로서, 여기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 넣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채홍은 동생 상순에게 남긴

유서 혈루가에서 ‘부모님께 불효녀가 남매간에 부끄럽지 학교에서 진급식에 개명부인 말씀듣고 야만에게 시집감과 남의집의 첩되기는 제부모의 강제라도 봉송하지 않겠다고 손을들고 일어서서 그작정을 하던것을 … 지금인들 잊었을까?’(「명월정」, 전집 6권, p.150.)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서구적인 부부윤리’의 일면을 습득하였고, 그러므로 부모의 강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야만인의 아내나 남의 첩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채홍이 서양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한 여성인사의 열성적인 연설에 매료되어, 일부일처의 부부관계를 지향하여 첩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이 첩이 되는 과정은 그녀가 가진 윤리의식의 잣대로 그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과정과 상황은 고려하지 못한 채 단지 첩 신분의 자신을 ‘여성으로서 절개’를 잃은 것으로 규정짓고, 첩이 된 자신으로 말미암아 ‘문벌에 점을 끼치는’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자살하였다. 즉 채홍은 자신이 기생으로 살수는 없는 일이었으며, 그리고 부모의 원수는 갚아야 하기에 허원의 첩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고 나니 첩이 된 자신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일관성을 엿볼 수 없는 채홍의 이러한 윤리적 태도는 서구적인 윤리의식과 유교적 윤리의식의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혼돈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 윤리적 혼돈이 그녀를 자살로 몰아 넣고 있었다. 그러므로 채홍을 그린 「명월정」의 작가 박신양은 작품의 말미에 그녀의 비극적 삶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녀를 그러한 운명으로 몰아넣은 채홍 부모의 무매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채홍의 도량과 의리와 절개를 보시오. 적은 욕을 참고 큰 원수를 갚았으며, 개돼지 만도 못한 상년·잡놈의 제반 악증을 받으면서도 굴치 않던 맘이 허원의 정대한 기상과 실사를 말하는데 감동되어 몸을 허락하고 … 또 학교 교육 받을 때에 육비에 새겨 잊지 아니하고, 한번 작정한 말에 절개를 지키려고 몸을 버려 죽

고 이름의 더러운 점을 씻으니, 이것이 여자 교육에 좋은 결과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불행히 잘못되는 경우에는 채홍 같은 여자도 아직까지 많지 못해, … (『명월정』, 전집 6권, p.151.)

박신양은 유교적 윤리의식을 철저히 내면화하고 있는 채홍에게 개화기 이상적 여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신교육을 통해 서구적인 윤리의식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채홍은 서구의 윤리의식과 기존의 유교적 윤리의식의 이질성을 체계적인 비난과 극복 없이 무조건 수용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비극적 운명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또한 그는 채홍과 같은 불행한 여성이 아직까지 많다고 하면서 채홍이 ‘여자 교육의 좋은 결과’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려 ‘이름의 더러운 점’을 씻은 채홍을 이 시대가 본받아야 할 여성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이처럼 채홍을 그린 박신양을 통해 당시 일상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교적 윤리의식과 서구적 윤리의식의 이중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이중적 모순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희생물’로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축첩제를 둘러싼 개화기 가족윤리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 V. 맺음말

개화기의 조선은 안팎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밖으로는 선진 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개항과 함께 일본과 서구의 이질적 문명이 유입되었고 안으로는 중앙정부의 무능력과 관료들의 만성화된 부패 등으로 하위 신분층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화기의 시대적 특성은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윤리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개화파 지식인들은 조선이 문명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전제적 조건으로서 일련의 가족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대상이 축첩제이다.

개화기 지식인들은 담론을 통하여 문명사회의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정형으로서 ‘일부일처’의 부부관

계를 제시하면서 첩과 작첩한 남성, 그리고 딸을 기생이나 첩으로 팔고 있는 부모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었다. 한편, 개화기 축첩제 담론은 남녀동등의 논리로 남성의 정절을 주장하면서 축첩제의 부당함을 역설하였고, 남편의 작첩에 대한 아내의 투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설명하면서 칠거지악의 하나인 투기엄금은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윤리의식으로 비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면은 이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윤리시각으로서 이것은 근대적 가족 윤리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개화기의 축첩제 담론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처첩분별’을 강화시킴으로써 축첩제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축첩제를 사회구조적인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의 부재로 말미암은 문제로 귀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첩이 되지 말라’는 단순하고도 감정적인 차원의 해결책은 오히려 일상의 여성에게 유교적 여성윤리의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개화기의 축첩제 담론은 여전히 개인의 도덕성의 회복을 통하여 축첩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막으려고 하였다. 인간의 원만한 삶을 위하여 도출된 윤리는 사회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윤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일상의 삶과의 괴리가 커질 때 윤리는 ‘삶의 지혜’라는 윤리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해 윤리가 강요된 관념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밀착되어서 삶의 윤택유가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축첩제 담론 안에 녹아있는 윤리의식은 개화기의 시대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윤리의식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행위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가족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화기 축첩제 담론의 분석을 통해 ‘시대의 산물’로서의 윤리의식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윤리의식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의 가족을 앓게 하는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가족을 둘러싼 제도와 윤리 안에 ‘전

통성'과 '근대성'이 함께 혼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 세기가 시작하면서 여성의 시민권과 인권을 주장하는 여권운동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훌쩍 흘러 진정한 의미의 21세기가 도래된 지금 새롭게 신설된 '여성부'는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삶의 배경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부의 뜨거운 화두 중의 하나가 '호주제도'인데, 이를 둘러싼 논의의 양상은 개화기 전통을 지키려는 '수구'인들과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개화'인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매우 흡사하다. 이처럼 개화기의 서구와 전통의 혼거으로 인한 갈등은 오늘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제는 오늘의 가족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으로 '가족'이 지금까지 귀결된 과정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 【참 고 문 헌】

- 가정잡지  
경국대전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천야록  
우암선칭계녀서  
제국신문  
태종실록  
한국신소설전집(울유문화사, 1968)  
김두헌(1949). 조선가족제도연구. 울유문화사.  
김호석 외(1989). 인간과 윤리. 박영사.  
김태길(1995). 한국윤리의 재정립. 철학과 현실사.  
문소정(1999). 한국 여성운동과 모성담론의 정치학. 모성의 담론과 현실. 심영희·정진성·윤정로. 나남출판.
- 박관승(1985).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지향. 한국민족주의론. 박현재 외. 창작과 비평사.  
백규삼(1982). 백주교의 사목서한.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정자(1999).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국학자료원.  
이광린(1979).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이배용(1994). 한국 근대 여성의식 변화의 흐름: 개화기에서 일제시기까지. 한국사시민간좌 15집.  
이정옥(1997). 가족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주의. 형성과 창조 2-3: 가정의 정신 문화적 의미와 가족주의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일(1987). 조선시대 서열신문운동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해조(1909). 윤리학. 기호홍학회월보 11호.  
장병인(1997).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장인성(1998). 체제해체기의 개혁사상. 조선시대 개혁사상 연구. 강광식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광용(1986). 신소설연구. 새문사.  
조은 외(1997).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숙경·정세화(1976). 개화기 한국여성의 근대의식의 형성.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최봉희(1994). 개화기 잡지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정현(1992). 신소설의 분석적 연구: 계몽의식과 근대의식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달레 지음, 안용렬외 옮김(1979). 한국천주교사연구상권. 분도출판사.  
미셀푸코 지음, 이정우 해설(1993). 담론의 질서. 새길.  
다이안페도넬 지음, 임상훈 옮김(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한울.